**빈 자리를 남겨 두세요!**

<고전 13:1-7>

1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3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4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양 좋은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이러한 은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보다 능력있게 감당하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은사가 없으면 그 모두가 의미 없다고 사도는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 바로 사랑입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유창한 말과 천사의 황홀한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녹슨 문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도 거기에 사랑이 결합되지 않으면 그건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하나님께 속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 눈앞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마치 그 뒤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처럼,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전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3절에도 보니까,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순교자처럼 불살라질 각오를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러한 나눔과 희생 자체가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눔과 희생의 삶이 과연 사랑 없이도 가능하단 말입니까? 예,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한 나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방관이나 구조대원처럼, 그저 투철한 직업정신에 의한 희생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빠진 이런 나눔과 희생은 본인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사도는 단호히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삼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온전한 빛을 띠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존재 가치를 극대화하며, 우리의 헌신이 풍성한 결실로 이어지게 하는 그 사랑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본문 4-7절은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실감나는 오늘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사랑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자만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며

“내가 먼저야”라고 말하지 않으며

화내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비굴하게 굴 때 즐거워하지 않으며

진리가 꽃피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무슨 일이든지 참으며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언제나 최선을 구하며

뒷걸음질하지 않으며

끝까지 견딥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사랑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구나, 우리 인생을 위한 가장 좋은 길이구나!”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또한 더욱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랑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더 자연스럽고 익숙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 이런 사랑의 개념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인지 모릅니다.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를 네 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스토르게’인데, 이것은 가족간의 친밀한 애정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에로스’인데, 이것은 남녀간의 정서적 결합으로서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은 필리아입니다. 이것은 친구간의 우정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가페입니다. 이 단어는 무조건적인 자비와 희생의 사랑, 즉 신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소위 사랑장이라 불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입니다. 그리스어로 씌어진 성경원문 역시 여기서 사랑으로 번역된 부분에 모두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치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을 위해 대신 죽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선하고 고귀한 사람을 보면 그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을 때에,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참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알지 못했던 엄청난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의미있는 존재로 인식되기 전까지, 우리는 참 사랑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일3:16).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십니까, 아니면 부담이 되십니까? 참 사랑을 체험으로 알게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알게 된 순간부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랑을 향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배신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물으셨습니다. 처음에 두번 예수님이 “아가파스 메”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필로 세”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배신한 적이 있었던 베드로는 더 이상 스스로를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필레오로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필레이스 메”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헤아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시자 베드로는 마음이 아파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때도 베드로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마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밖에 대답할 수 없지만, 주님은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주시며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후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지금은 네가 나에게 필리아의 사랑만을 고백하지만, 후에는 네 삶을 통해 더 온전한 사랑을 표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더 온전한 사랑의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에 계속해서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길 원하십니다. 이 사랑의 삶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갔다는 증거입니다.

찬송가 37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의 1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소리 뿐일세 /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채우는 /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 사랑 위해 저희들 오래 참고 있었네.”

찬송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말하고, 노래하고, 또한 구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접하는 사랑은 너무나 가볍고 힘이 없습니다. 한 영혼이 상처입고 낙심했을 때, 큰 실패를 겪고 절망했을 때, 혹은 부부간에 깊은 갈등의 골이 생겼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이 문제의 상황에 진정 생명의 빛을 던져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참 사랑을 누리고 또한 흘려보내며 살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을 위한 빈 자리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우리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위한 빈 자리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을 때, 우리는 그 충만함 안에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사소한 일들로 너무 바쁘고, 그 때문에 불안하고 조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하고 좋은 것들을 자주 잊거나 소홀히 여깁니다.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소중히 가꾸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갖지 못한 것만 바라며 삽니다. 이로 인해 삶은 점점 더 퍽퍽해지고. 나 자신과 타인을 향한 너그러움과 여유는 점점 상실되어 갑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유한한 것들에 대한 환상에 자주 사로잡히곤 합니다. 마치 그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여 그것에 집착합니다. 그것을 사랑하고, 또 그것을 위해 경쟁합니다. 그것들 앞에서 늘 “내가 먼저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너무도 자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기도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위한 빈 자리를 남겨 두고, 그곳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호흡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활동하시도록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줄기차게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그 위에 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분주함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퍼주어야 하는 삶이었지만, 예수님의 영혼은 결코 기갈된 적이 없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늘 사랑의 젖줄에 잇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성학자 헨리 나우웬은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만큼이나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되느냐에 따라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고난받을 것이고 더 많은 빛과 더 많은 어둠을 볼 것이고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입니다. 그것은 온 세상에 참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한 최선의 준비입니다.

기도를 통해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참 사랑의 삶을 위해 우리는

내 삶 속에 다른 사람을 위한 빈 자리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실제로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고 섬길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기를 원하십니다.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은 끊임없이 돌아다니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여행 중에 만나는 이들을 그분 안으로 초청하기 위한 걸음 걸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6:35,37)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형식적인 면에 치우쳐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려 했고,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졌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을 자신의 삶 속에 초청하기는 커녕, 그들을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 안에 다른 사람을 위한 빈 자리를 늘 남겨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고 자유로운 그 환대의 공간에 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조차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은 그들을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 비천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물 좀 달라” 말을 건네며 다가가셨습니다. 잠시 뒤 그 여인은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생명의 물을 달라고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에 혈루병 앓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 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위해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잠시 동안의 만남이 여인에게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님을 위해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할 것 같고,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많은 경우 우리에게 좌절감을 안겨 주거나 혹은 실수를 하게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할 수 있고 또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가꾸고, 누군가를 내 삶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소유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고 또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자세 없이 그들에게 다가가면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는 커녕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속이거나 심지어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폭력을 가하기 쉽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복음을 경험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기로 작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해야할 일, 좋아하는 것들을 다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나 혼자 누리겠다 고집부리지 말고,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공유하기로 결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 빈 자리를 남겨 두고, 그곳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가꾸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거룩한 곳으로 내어드리라는 뜻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성령 안에서 늘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위한 빈 자리를 남겨 두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곳을 풍성히 가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삶 속에 이웃을 위한 빈 자리를 남겨 두고, 그들이 내 삶 속에 깃든 하나님의 사랑과 만날 수 있도록, 기꺼이 섬김의 수고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참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빈 자리를 남겨 두고, 받은 사랑 흘려보내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우리가 간직해야 할>**